

# 「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세계」

尹 恩 基 <경영정보전략연구소장>

인류는 원시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과거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처럼 靜的인 사회가 아니라 動的인 사회이다. 그리고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보화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유용하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정보화사회의 첨단과학적 측면, 자원론적 측면, 그리고 의식구

조의 측면에서 각각 점검해 보기로 한다.

이는 이 세가지 측면이 정보화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첨단과학의 발전과 정보유통

정보화사회가 되면 「펼치아픈 계산은 컴퓨터가 하고, 힘든 일은 로봇이 하며, 인간은 먹고 마시며 노는 고도 복지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첨단과학은 우리에게 기회와 편리함, 그리고 높은 성

과를 가져다 주는 반면 동시에 같은 강도의 위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현대사회를 특히 C & C 시대 라고도 하는데 이는 첨단과학의 상징인 컴퓨터(computer)와 통신망(communication)의 결합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컴퓨터는 정보의 처리와 축적을 담당하고, 통신망은 이동과 전파를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놓고 있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서울올림픽, 레이건, 다케시다, 등소평의 움직임이 동시에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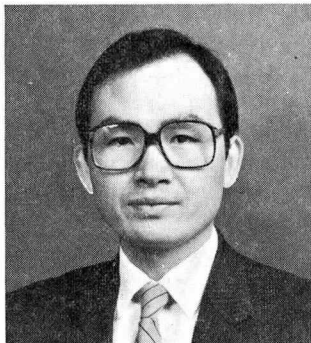
우리는 첨단과학 덕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활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1년과 농경사회의 1년, 그리고 원시시대의 1년은 시간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미래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교통, 통신이 없던 고대 이집트 시대의 4000년과 현재의 정보화사회 1년이 똑같은 시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30여년간 잘 유지해 온 기업이 3년간만 경영 실책을 범해도 도산하고 마는 것은 지년간 30년보다 최근의 3년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는 위험도 높고, 성과도 높은 양상(High risk, high return)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처럼 고농축된 시간과 공간의 가치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은 이러한 기회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정보는 기회포착과 위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 정보집약사회로의 전환

인류는 노동집약사회에서 기술집약사회, 자본집약사회를 거쳐 이제는 정보집약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 필 자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 근무
- ▲한국능률협회 지도위원
- ▲United Consulting Group 수석컨설턴트
- ▲「산업정보학교」 개설 및 운영
- ▲경영정보전략연구소 소장(현)
- ▲저서 “정보력과 휴먼웨어” “정보학 특강” 외 다수

정보집약사회란 모든 분야에서 정보가 힘의 원천이요, 주요자원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모든 힘은 정보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정보화사회의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자.

#### ● 자본력 X 정보력 = 財테크

오늘날은 돈과 정보가 결합되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주식투자, 국제환율 게임, 아이디 어산업, 해외자원 개발, 뉴비지니스 등이 모두 財테크에 포함되며,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財테크란 결국 財務 하이테크를 줄인 말인데 선진국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財테크에서 손익이 결정된다.

최근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다는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보다 財테크로 번 돈이 더 많아져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돈 그 자체보다는 돈과 정보가 결합될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회인 것이다.

#### ● 기술력 X 정보력 = 하이테크

재래식 기술에다 정보를 곱하면 첨단기술, 즉 하이테크가 나온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로는 경쟁에 한계가 있으며, 무단히 새로운 정보를 결합시켜야만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정보의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토지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國富論(Wealth of Nations)으로부터 새로운 情報國富論(Wealth of Information)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정보의 획득과 활용이 모든 富의 원천이 되는 사회인 것이다. 강대국이란 자원이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정보력이 강한 나라를 의미한다. 오늘날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에 멕시코나 인도, 브라질 등은 자원은 많지만 강대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직의 힘은 규모나 역사, 구성원의 수 등에 달려있다고보다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활용력에 달

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의식구조의 多元化와 다양성

국민학교 1학년 아동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저 어른들의 말을 흉내내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60세된 노인보다 정보화사회의 6세된 어린이가 더 많은 정보를 두뇌에 입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매스컴의 발달과 조기교육, 그리고 생활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변화이다.

아이들이 총기있고 영특해지는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은 과거와는 다른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계층간 분야간의 정보입력 차이로 인하여 다양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Many Voices, One World」

이는 저명한 미래학자이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유네스코 정보 문제위원장 존 맥그라이드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이다. 「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세계」야 말로 정보화사회의 속성을 대변하는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세계는 개성화, 다양화의 물결과 함께 다원적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통신망과 정보기기의 발전,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켜 우리가 하나의 세계(One World) 속에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가 세대차(Generation Gap)라는 말을 써온 것은 수직적 사회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제는 세대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간에도 多元的인 의식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념, 종교, 학력, 빈부, 취향, 가치관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수직적 계층뿐만 아니라 수평적 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이를 억지로 통제하려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은 너무나 뚜렷하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과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조정하는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양한 욕구와 주장이 표출되는 사회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수단이 없다면 「다양한 목소리, 골치아픈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교류, 타협과 설득, 상호이해력의 증진과 상호존중의 태도가 형성되지 않고는 「골치아픈 세상」을 피할 것이 없다. 이제는 일방적 지시나 명령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특정계층의 독점적 이익추구도 용인되기 어려운 양상이 되었다.

이상 정보화사회의 특징적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脫권위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

둘째, 다양성과 다원적 체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안목을 유지한다.

셋째, 일방적 대화의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습관에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정보화사회의 진실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직시하려는 자세가 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